

# 사십 절의 숨겨진 역사 - 숫자 열셋

열셋이라는 수

Jeff Pippenger

2026-05-28

십사만 사천의 주된 표상으로서, 베드로는 2026년에 파니움에 서서 2020년 7월 18일의 거짓 예언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그의 사업은 1840년 8월 11일에 대한 조시아 리치의 정정과 1844년 10월 22일에 대한 사무엘 스노의 확인의 사업과 일치한다. 리치의 정정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였고, 스노의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하였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부여된 능력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부여되는 능력을 예표한다. 첫째와 둘째의 특성은 셋째 안에서, 외적인 화의 기별과 열 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한밤중의 부르짖음이라는 내적인 기별의 결합으로 표상된다.

예언의 삼중 적용에서, 처음과 셋째 적용은 곧 시작과 끝이기도 하므로 서로 평행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최근 한 형제가 요한계시록 9장의 첫째 화와 관련된 여러 진리를 밝혀냈는데, 이것들은 알파와 오메가의 원칙 아래 적용될 때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에 대한 또 하나의 심오한 확증을 제시한다. 미국의 일요일 법은 "지진"이며, 이는 다니엘서에서 이교 로마의 예언적 구조를 이루었던 열 나라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프랑스가 전복되었을 때, 곧 프랑스 혁명에서 처음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11장은 그 성읍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고, 그 지진으로 사람 칠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요한계시록 11:13.

바로 이 절 다음에 셋째 화의 이슬람이 도래한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요한계시록 11:14.

선구자들은 "셋째 화"가 둘째 화에 즉시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속히"로 번역된 그 말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라는 뜻이며, 이것이야말로 이슬람의 기습 공격의 특징이다. 셋째 화는 선구자들이 추정해왔던 것처럼 1844년 10월 22일에 도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래할 때에는 9-11에서 그러하였듯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일어날 것이었으며, 이로써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시작이 표시되는데, 그 인침은 일요일 법의 지진이 있기 직전에 끝난다.

일요일 법령의 "지진"은 "땅" 짐승의 흔들림이며, 9-11이 이르렀을 때, 화잇 자매는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크게 진동시키려" 하셨다고 밝혔다. 인침은 일의 시작과 그 마지막에서 땅 짐승이 흔들리니, 곧 "큰 지진"이다.

"나는 이것을 결코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저기서 층층이 높이 올라가는 그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얼마나 두려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주께서 그분의 경륜적 사역에 변화가 있을 때 “일어나시니,” 이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와 1844년 10월 22일에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의 경우와 같았다. 산 자들에 대한 심판이 9/11에 시작되었을 때, 주께서는 다시 일어나셨고, 그때 그분은 땅의 짐승을 흔드셨으며, 이는 그분께서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치는 일이 끝날 때에, 그분의 경륜적 사역을 그분의 교회에서 아직 바벨론에 있는 자들 가운데 속한 그분의 다른 양 떼에게로 옮기실 때 행하실 일과 같다.

다니엘 형제가 발견한 것은 첫째 화의 특성들로서, 그것은 역사와, 그리고 첫째 화를 성취한 역사에 대한 선구자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가운데, 11장의 “큰 지진”의 증언과 서로 부합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한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그 구렁이에서 올라오매 그 구렁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메뚜기들이 땅 위에 나오니 그들이 땅의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져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9:1-4.

선구자들은 이 구절들을 무함마드를 등장시킨 역사에 정확하게 적용하였다. 무함마드는 570년에 태어났고, 606년에 부족들을 통합하였으며, 610년에 첫 계시를 받았고, 622년에 메디나로 이주하였으며, 624년에 전쟁을 시작하였고, 632년에 죽었다. “무저갱”은 예언적으로 사탄의 새로운 출현을 나타내지만, 무함마드는 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라비아는 광대한 사막들 때문에 또한 무저갱으로 알려져 있다.

무함마드는 606년에 예언적 왕이 되었는데, 그때 그는 카바의 “검은 돌” 모퉁잇돌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누구에게 허락할 것인가를 두고 난처한 처지에 있던 여러 부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뢰받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카바는 입방체 모양의 건축물로서(따라서 “카바”라는 명칭은 아랍어로 “입방체”를 뜻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대모스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것은 높이 약 43피트, 너비 11피트, 길이 10피트 정도이며,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그 위를 검은 비단과 면으로 된 천이 덮고 있다. 카바는 무함마드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본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한 분 하나님(알라)을 위한 예배의 집으로 세운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랍 부족들에 의해 이교도의 성소로 사용되었다.

카아바는 이슬람 세계의 영적 중심지이다—그것은 단순하고도 고대의 건축물로서, 유일신 신앙과 일치, 그리고 아브라함 계통의 신앙과 이슬람 사이의 연결을 상징한다. 무슬림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위해 신적으로 정해진 중심점으로 여긴다. 카아바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던 시기에 있었던 무함마드의 행위들에서 그의 지도력이 시작되었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카바가 손상되자 꾸라이시 부족이 그것을 다시 세웠다. 검은 돌(하자르 알 아스와드)을 다시 그 모퉁이에 놓을 때가 되었을 때, 서로 다른 씨족들은 누가 그 영예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다. 그들은 다음으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결정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무함마드가 들어왔고, 그는 그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였다. 그는 검은 돌을 천 위에 놓고, 각 씨족에서 한 대표가 함께 그것을 들어 함께 운반하게 한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이 친히 그것을 제자리에 놓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메카 사람들 가운데서 큰 존경과 알 아민("신뢰받는 자")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많은 연대표에서 강조되는, 예언자로 부름받기 이전의 핵심적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검은 돌"은 이슬람 위에 있는 예언적 왕인 무함마드에 의해 놓인 주춧돌이었다. 그 검은 주춧돌은 그리스도(참된 모퉁잇돌)의 명백한 위조물이며, 오랜 세월 우상들이 도입된 후 카바의 집이 부패한 일 또한 무함마드에 의해 해결되었다.

쿠라이시가 후다이비야 조약을 파기한 후, 무함마드는 약 1만 명의 무슬림 군대를 이끌고 메카로 진군하였다. 그 도시는 거의 전투 없이 항복하였다. 이어 무함마드는 카바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360개의 우상을 파괴하고, 그 성소를 한 분 하나님(알라)께 대한 예배를 위해 다시 봉헌하였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왕 무함마드는 주춧돌을 놓았고, 그는 그 성전을 우상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였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세 세력이 있으며, 이 셋은 각각 거짓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탄 곧 용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고자 하며,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교회에 앉고자 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열국을 약하게 하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에, 곧 구렁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 14:12-15.

무신론의 용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고, 가톨릭교의 짐승은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서,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있게 될 그 짐승을 볼 때에 놀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8

가톨릭교라는 짐승은 삼중 연합이 수립될 때, 곧 일요일 법령에서 세상의 왕좌에 오른다. 용과 같이, 가톨릭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이를 매우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이르지 아니하고, 또 저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날은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며, 심지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나타내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3, 4.

용과 같이 가톨릭교회의 짐승도 적그리스도이니, 둘 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둘 다 그들의 성경적 증언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멸망을 맞이한다. 이는 용은 지옥으로 끌어내려지고, 짐승은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멸망이란 최종적인

파멸을 의미한다.

“하늘에서 그가 시작한 반역을 수행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결의는 계속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교회증언』, 제9권, 230.

“로마의 교황을 통하여, 어둠의 왕자가 추방되기 전에 하늘 궁정들에서 수행되던 바로 그 동일한 일이 여기 지상에서도 계속 수행되어 왔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고, 자기 자신의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의 판단을 자기 창조주의 판단 위에 높였고, 자기의 뜻을 여호와의 뜻 위에 두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하나님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교황도 또한 동일한 길을 취하여, 자신에게 무오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자신의 사상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하늘과 땅의 주의 율례와 명령들 속에서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오류들을 자신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는 사실상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법들보다 더 나은 법들을 주겠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인가!” Signs of the Times, November 19, 1894.

이슬람은 7세기의 역사에서 마호메트로 대표되며, 마호메트에게 주어진 열쇠가 돌려졌을 때에도 또한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그 구덩이가 열렸을 때,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연기”가 나왔다. 선구자들은 그 구덩이를 연 “열쇠”가 니네베 전투였음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다.

우리가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선구자들의 이해를 따라 요한계시록 9장 처음 세 절에 접근할 때, 첫째 화를 나타내는 그 절들의 예언적 특성들이 큰 지진 때 “속히” 이르는 셋째 화의 예언적 특성을 예표함을 발견하게 된다. 일요일 법은 니스워 전투로 표상된다.

베드로는 내슈빌의 불덩이에 관한 거짓 예언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으며, 그는 내슈빌에 임할 불덩이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경고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일이 “거의 온전히 위상송배에 바쳐진 수천의 도시들의 멸망”의 시작을 표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내슈빌의 불덩이들은 도성들 위에 임할 멸망의 한 시기의 시작을 표할 뿐 아니라, 짧은 자정 부르짖음 기별의 선포의 시작 또한 표한다. 그 기별은 이슬람으로부터의 뜻밖의 공격과 함께 시작되며, 그 시기는 큰 지진 때 이슬람으로부터의 뜻밖의 공격과 함께 끝난다. 자정 부르짖음의 선포의 시기는, 9·11에 이슬람의 뜻밖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던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의 끝을 표한다.

그때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일이 발람과 나귀의 노선에 일치하여 시작되었는데, 그 노선에는 일요일 법에서 절정에 이르는 세 번의 침이 있으며, 그러나 두 번째 뜻밖의 공격에는 2023년 10월 7일 옛 영화로운 땅에 대한 공격과 이어서 내슈빌의 불덩이 사건이 포함된다. 모든 노선은 일치하며, 베드로는 흩어진 보석들을 모아 관 속에 던져 넣는 흙먼지 솔질하는 사람으로 표상된 이 진리들의 개봉이 유다 지파의 사자의 사업임을 이해한다.

유다의 사자는 피터의 수정된 내슈빌 기별을 다니엘 11장 40절의 감추어진 역사에 의해 표상된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의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밝히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같은 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의해 표상된 그 감추어진 역사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밝힌다. 그 구절들에서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는 16절의 일요일 법으로 이어지며, 그 일요일 법은 악티움 전투로 표상된다. 파니움 전투가 일요일 법에서 악티움 전투와 결합될 때, 니스웨 전투 또한 반복된다.

이슬람의 왕인 모하메드에게 주어진 "열쇠"는, 그의 이름이 단지 이슬람의 성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니네베 전투로 표지된 멸망의 장소를 또한 가리킨다.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아볼루온이라."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구약과 신약을 강조하며, 아바돈은 "멸망의 장소"를 뜻하고 아볼루온은 "멸망시키는 자"를 뜻함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이슬람을 다스리는 왕은 모하메드이지만, 그는 또한 사탄인 "무저갱의 사자"이기도 하다. 교황이 지상에서 사탄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모하메드 역시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다.

일요일 법령 때에 삼중 연합은 세상에 강요되며, 그리하여 1798년에 교황권에 가해져 암흑시대의 종말을 표지하였던 치명상이 치유된다. 치명상이 치유될 때 암흑시대의 두 번째 기간이 도래하며, 일요일 법령인 그 큰 지진 때에 이슬람이 열쇠를 돌리고 용광로에서 나는 것 같은 연기가 해와 별들을 가려 흑암이 다시 돌아온다. 니스웨의 전투는 일요일 법령 때에 반복되는데, 이는 그것이 두 번째 흑암의 시기를 가져오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국가적 배도가 국가적 파멸로 뒤따른다. 거기에서는 "활동적인 전제정치"가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니스웨의 전투에서 해와 별들을 어둡게 하는 이슬람의 연기가 타는 용광로와 같기 때문이다. "타는 용광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한 요소였다.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보라 연기 나는 화덕과 타는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창세기 15:17.

아브람의 언약 제물 사이로 지나간 연기 나는 화덕은, 13절의 구절에 나타난 애굽의 속박을 가리켰다.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씨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창세기 15:13.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풀무와 같은 "타오르는 풀무"는 속박과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데, 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처지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 정해진 궤도의 광대한 행로를 따라 운행하는 별들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는 조급함도 지체함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큰 흑암과 연기 나는 화덕의 표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의 우거하는 기간이 사백 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5:14." 시대의 소망, 33.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오늘과 같이 너희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4:20.

니스웨 전쟁의 열쇠가 돌려질 때 해와 달을 어둡게 하는 연기는, 일요일 법령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박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암흑시대의 박해가 다시 반복된다.

선구자들은 니스워 전쟁이 627년에 첫째 화로서 이슬람을 예언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열쇠”였음을 올바르게 확인하였다. 그 전쟁은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었고, 로마의 승리를 나타내었으나, 그것은 이른바 피로스의 승리였다. 곧 승리자에게 실제로 해가 되는 승리였다. 이 표현은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의 승리에서 유래한다. 그는 로마인들과의 두 차례 전투(기원전 280년의 헤라클레아 전투와 기원전 279년의 아스쿨룸 전투) 후에 로마 군대를 격파하였으나, 자신의 군대에서도 막대한 병력을 잃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때 그는 “이와 같은 승리를 한 번만 더 거둔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니스워 전투는 로마에게 전략적 승리였으나, 그 전투가 끝난 뒤에는 로마도 페르시아도 그 후 이슬람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니스워 전투의 현대적 성취에서 페르시아는 미국이며 로마는 교황권이다. 두 별 가진 세력으로서의 메대-바사는 미국의 두 별 가진 세력을 표상한다. 일요일 법 때에 미국은 단지 하나의 별일 뿐인데, 이는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었고, 그 형성은 두 별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니엘 8장에는 메대-바사 제국을 나타내는 두 별이 있으며, 바사의 별이 나중에 올라왔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별 가진 숫양 하나가 강 앞에서 있었는데, 그 두 별은 높았으나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더 높았고, 그 더 높은 것은 나중에 올라왔다.  
다니엘 8:3.

미국의 공화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별은 교회와 국가가 함께 모여 짐승의 우상을 형성할 때 하나로 결합한다. 그 형성은 짐승의 표가 일요일 법령에서 강요될 때 완전히 성취된다. 이것은 미국을 일요일 법령의 시점에서 단순히 페르시아로 규정한다. 페르시아는 니스워 전투에서 로마에게 패배하였다. 로마가 어떻게 페르시아를 패배시켰는가, 로마 황제 헤라클리우스의 전략적 기동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간단히 말해, 헤라클리우스는 정면으로 전진하는 공격과는 달리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 기습을 성취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습에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드문 일이었던 겨울철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그의 결정이 포함되었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헤라클리우스는 627년 9월 중순 북쪽, 곧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침공을 시작하였다. 예상되었던 대로 곧장 남쪽으로 페르시아의 수도 크테시폰을 향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는 넓은 호를 그리며 국경 지대를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하였다(대체로 오늘날의 터키-이란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 그런 다음 그는 남쪽과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627년 12월 1일 대자브 강을 건넜다. 이로써 그의 군대는 티그리스 강 동안, 고대 니스워의 폐허 가까이에 있는 니스워 고원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 기동은 페르시아 군대에 대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는 페르시아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였다. 그들은 그가 계속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 크테시폰을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일은 페르시아 지휘관 Rhahzadh를 허를 찔린 상태에 빠뜨렸고, 그로 하여금 헤라클리우스를 불리한 지형으로 추격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것은 로마군이 니스워 근처 평원에서 전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기동은 로마군이 페르시아 군대 사이에 갇히는 것을 막아 주었고, 필요할 경우 퇴로도 확보해 주었다. 전투 당일의 안개와 실제 교전 중 사용된 가장 후퇴 전술이 더해져, 기습에는 여러 겹의 층위가 있었다. 페르시아 영토 깊숙이 감행된 이 대담한 겨울 침공과 측면 우회

경로는 헤라클리우스의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오랜 전쟁에서 결국 로마가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날이 밝은 때부터 제십일 시까지 치열하게 벌어진 니스웨 전투에서, 부러지거나 찢겨졌을지도 모를 군기들 외에, 스물여덟 개의 군기가 페르시아인들로부터 탈취되었다. 그들의 군대의 대부분은 도륙되었고, 승리자들(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감춘 채 그 밤을 전장에서 보냈다. 앗시리아의 성읍들과 궁전들이 처음으로 로마인들에게 개방되었다.

로마 황제는 그가 이룩한 정복들로 말미암아 강성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같은 수단에 의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나온 메뚜기 같은 아라비아의 사라센 무리들을 위한 길이 예비되었으니, 그들은 지나가는 길마다 어둡고 미혹케 하는 마호메트교의 신조를 퍼뜨리면서, 신속히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양자를 뒤덮었다.

이 사실에 대한 더 완전한 예증은, 앞선 발췌문들이 취해진 기번의 장의 결론 부분에 제시된 것보다 더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헤라클리우스의 군기 아래 승리하는 군대가 편성되었으나, 그 부자연스러운 노력은 그들의 힘을 단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진시킨 듯하였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나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누리고 있는 동안, 시리아 변경의 한 이름 없는 성읍이 사라센인들에게 약탈당하였고, 그 구원을 위하여 진군한 군대 일부는 그들에게 무참히 살육되었다. 그것이 거대한 혁명의 전조가 아니었더라면, 이는 통상적이고 하찮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강도들은 마호메트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의 광적인 용맹은 사막에서부터 솟아 나왔고, 그의 통치 마지막 8년 동안 헤라클리우스는 자신이 페르시아인들에게서 탈환하였던 바로 그 지방들을 아랍인들에게 빼앗겼다.

“하늘에 그 거처를 두지 않은 사기와 광신의 영'이 땅 위에 풀려났다. 무저갱은 그것을 열 열쇠만 있으면 되었고, 그 열쇠는 호스로에스의 몰락이었다. 그는 메카의 한 무명의 시민이 보낸 편지를 경멸스럽게 찢어 버렸다. 그러나 그의 '영광의 불꽃'으로부터 그 어떤 눈도 꿰뚫어 볼 수 없는 '흑암의 탑' 속으로 추락하였을 때, 호스로에스의 이름은 갑자기 마호메트의 이름 앞에서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초승달은 마치 그 별의 추락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떠오를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호스로에스는 완전한 패배와 제국의 상실 후에 628년에 살해되었고, 629년은 '아라비아의 정복'과 '로마 제국에 대한 마호메트교도들의 첫 전쟁'으로 특징지어진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는 땅에 떨어졌다. 로마 제국의 힘이 소진되고 동방의 대왕이 그의 흑암의 탑에 죽은 채 누워 있을 때, 시리아 변경에 있는 한 무명의 도시를 약탈한 사건은 '거대한 혁명의 전주곡'이었다. '그 약탈자들은 마호메트의 사도들이었고, 그들의 광란적 용맹은 사막에서 솟아났다.'” Uriah Smith, Daniel and the Revelation, 495-497.

니스웨의 전투는 일요일 법령 때 현대 로마가 미국을 정복하는 것을 상징하지만, 그것은 피로소적 승리에 불과하다. 이는 일요일 법령에서 로마에 대한 점진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호스로에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장이었으므로, 미국의 일요일 법에서의 몰락을 상징하는 페르시아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몰락 시 무저갱을 여는 열쇠이다. 그것은 다니엘 11장 16절, 31절, 41절의 일요일 법을,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그것을 대표한다.

동일한 구절들과 역사에 대한 개척자 스티븐 해스켈의 논평에 주목하라:

“아랍인들, 곧 사라센인들은 이전에는 땅 위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었다. 민족들의 역사 속에서 이 사막의 자유인들은 거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 마호메트교는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결속시켜, 그들을 여러 나라의 정복자로 내보냈다. 사라센의 무력이 수반한 급속한 진전은 상당 부분 로마인들과 현대 페르시아 제국의 우두머리인 코스로에스 사이의 투쟁에 기인하였다. 이 투쟁은 후자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현대 페르시아는 마호메트의 세력을 저지하는 방벽으로서 있었으나, 그 세력이 무너지자 장벽은 사라졌고, ‘무저갱’이 열리며 사라센인들이 세상을 범람시켰다. ‘무저갱이 열리매 해의 얼굴을 가리는 연기가 올라왔다.’ 이 비유는 매우 강렬한 것으로서, 마호메트교가 땅의 표면 위로 퍼져 나가면서 초래한 암흑화의 효과를 나타낸다.” Stephen Haskell, 『The Story of the Seer of Patmos』, 164, 165.

로마의 역사에서 그 장벽은 주일법에서 제거되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벽이다. 니스웨 전투에서 로마가 페르시아에 대해 거둔 피로스의 승리에는 또 하나의 층위가 있으니, 이전의 니스웨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알파를 나타내며, 627년의 전투는 오메가를 나타낸다. 그 전투는 대략 1,200년의 간격을 두고 기원전 612년에 있었다. 그 전투에서 앗수르는 삼중 동맹에 의해 패배하였고, 이는 앗수르 제국의 종말을 표시하였다.

A. T. 존스는 니스웨의 알파 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앗수르 정부의 정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기원전 612년에 이번에는 나보폴라살 자신이 이끄는 동일한 세 나라의 또 하나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이것은 완전히 성공하여, 니스웨는 폐허 더미가 되었고, 앗수르 제국은 세 개의 큰 구역으로 분할되었다. 곧 메대는 북동부와 맨 북쪽 지역을 차지하였고, 바벨론은 엘람과 유브라데 및 티그리스의 모든 평야와 골짜기를 차지하였으며, 애굽은 유브라데 서쪽의 온 지역을 차지하였다. 바벨론과 메대 사이의 이 동맹의 인은 메대 왕의 딸이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과 결혼한 것이었다.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앗수르 왕과 싸우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갔을 때, 유다 왕 요시야가 그와 싸우려고 나갔다가 므깃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앗수르를 대적하는 동맹에서 그가 맡은 몫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때 이 서방의 온 영토가 애굽 왕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는 정복으로 획득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여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유다 왕의 자리에서 폐하고, 그 대신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며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또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역대상 3:15; 열왕기하 23:31-35. A. T. 존스, Review and Herald, 1898년 3월 15일.

기원전 612년 니스웨의 알파 전투에서 앗수르 제국은 종말을 고하였는데, 이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일요일 법에서 끝나는 것과 같다. 그 전투의 승자는 바벨론, 애굽, 메대의 삼중 연합이었다. 그 시대의 전쟁 가운데 요시야 왕은 므깃도에서 죽으니, 이로써

아마겟돈을 예표한다. 627년 니스웨의 오메가 전투에서는 세 번째 화의 이슬람이 풀려나는데, 이는 헌법 안에 있는 보호의 성벽이 제거될 때이며, 하스켈이 페르시아에 대하여, 페르시아의 패배와 함께 보호의 "장벽"이 제거된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예표된 것이다. 므깃도에서의 요시아 왕의 죽음은 첫 번째 니스웨 전투가 마지막 날들에 있어서 둘째 전투임을 밝혀 준다. 열쇠가 돌려지고 무저갱이 열리는 627년의 두 니스웨 전투 중 마지막 전투는 마지막 날들에 있어서 첫째인데, 이는 첫째가 나중 되기 때문이다. 앗수르와 삼중 연합 사이의 첫 번째 니스웨 전투는 아마겟돈으로 이끈다. 둘째 암흑시대의 기간은 니스웨 전투로 시작하여 니스웨 전투로 끝난다.

요한계시록 9장의 첫째 화인 다섯째 나팔의 사실들은, 선구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어느 구절보다도 가장 분명한 역사적 증거로 이해한 것이었다. Uriah Smith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제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한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이 나팔에 대한 해설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키스 씨의 저술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이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진실하게 말한다.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곧 첫째와 둘째 화를 사라센인들과 터키인들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해석자들 사이에 이처럼 한결같은 일치이 이루어진 경우는 묵시록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여 거의 오해될 수 없다. 각기 한두 절로 지시되어 있는 대신, 요한계시록 제9장 전체가 두 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뉘어, 이 둘에 대한 묘사로 채워져 있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495."

베드로는 내슈빌의 불덩이들의 기별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지고 파니움에 있으며, 그곳에서 첫째 화의 요소들이 곧 닥쳐올 일요일 법의 요소들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는 이미 자신이 세워 두신 다른 예언의 노선들과 조화되게 이 이해를 개봉하셨다. 역사가들은 627년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향해 감행한 기습 공격의 중요성을 증언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공격의 때까지 은밀히 숨어 있기 위한 계획으로서 헤라클리우스가 한겨울에 페르시아의 주위를 돌아 그 배후로 기동한 사실을 주목하였다.

화이트 자매는 로마가 단지 "유리한 입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그때가 되면 공격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박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주었다. 이것이 무시된다면, 개신교 세계는 올무에서 벗어나기에 이미 너무 늦었을 때에야 비로소 로마의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세력을 키워 가고 있다. 그녀의 교리들은 입법의 전당에서,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그녀는 높고도 거대한 구조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으며, 그 은밀한 깊은 곳에서 그녀의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될 것이다. 그녀는 때가 이르러 타격을 가할 때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은밀하고도 눈에 띄지 않게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다만 유리한 입지뿐이며, 이것은 이미 그녀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는 로마적 요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곧 보게 될 것이며 또한 느끼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비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1.

황제 헤라클리우스의 경우와 같이, 교황권은 이사야 23장의 성취 가운데 “은밀하고도 뜻밖에도”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두로의 음녀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역사를 위하여 잊혀진다. 헤라클리우스의 비밀스러운 기습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교황권을 잇는 것을 뜻한다. 한 줄 위에 또 한 줄을 따라, 첫째 화는 셋째이자 마지막 화를 표상한다. 첫째 화에서 한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또한 이슬람의 역사 및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기간과도 일치한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땅의 풀이나 아무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허락하시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하시니, 그 괴로움은 전같이 사람을 쓸 때의 괴로움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자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요한계시록 9:4-6.

니느웨의 전투, 곧 속히 이를 일요일 법에서 열쇠가 돌려지기 전에, 십사만 사천은 이미 인침을 받는다. 일요일 법 때에 내슈빌의 불덩이들로 시작되는 도시들의 멸망은 “다섯 달”의 기간으로 표상되며, 그 기간 동안 전쟁이 맹렬히 일어나고, 다섯째 인에서 암흑시대의 순교자들에게 주어진 응답의 성취로서 두 번째 교황권의 유혈 학살이 시작된다.

그가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니,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자기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9-11.

암흑시대의 순교자들은 일요일 법 위기 동안의 현대 로마의 순교자들을 예표하는 첫째 무리이다. 그 위기가 이르기 전에 십사만 사천은 인침을 받으며, 그 인치는 과정은 셋째 화의 이슬람이 도래하고 늦은 비의 뿌림이 시작된 9/11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암흑시대의 순교자들이 교황권이 언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암흑시대가 반복될 때 둘째 무리의 순교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그때 니느웨 전투의 열쇠가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서 성취된다. 둘째 무리의 순교자들이 형성되기 전에 십사만 사천은 인침을 받으며, 9/11에 시작된 그 인침의 기간은 다섯째 인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거기에 제시된 대화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며, 이로써 9/11로 인침의 시작과 끝이 표시된다. 그 끝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이슬람의 멸망을 도입하며, 인침을 받은 자들은 다니엘 9장 11절에 제시된 다니엘의 경험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다루겠다.